17 WEA연구위원회 보고

제105회기 WEA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한기승
서 기 박성규

1. 조직

- 위 원 장 : 한기승
- 부 위 원 장 : 임종구
- 서 기 : 박성규
- 회 계 : 장일권
- 총 무 : 추성환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0. 12. 1(화)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위원회 조직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위원장 한기승 목사 부위원장 임종구 목사 서기 박성규 목사
  회계 장일권 목사 총무 추성환 목사
  ② 다음과 같이 연구 의뢰하기로 하다.
  - 대상 : 총신, 대신, 칼신, 광신, 합신, 고신 신대원 교수회
  - 절차 : 각 교수회에서 연구위원 선정 후 연구 교수회 인준 후 본 위원회 제출
  - 주요내용 : WEA 신학연구, WCC와 WEA의 공통점과 차이점, WEA와 개인 혹은 교단의 교류는 가능한가?
  - 연구비 : 각 교수회 500만원 지원
  - 연구보고서 양식 : 서기에게 위임
  - 제출기한 : 2021년 3월 31일(수)까지

(2) 제2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0. 4. 16(금)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6개 신학교에 연구의뢰하였으나 총신, 칼신, 광신에서만 제출하여 기독신문에 연재하기로 하되 분량이 많아 연구 논문을 3페이지로 요약 의뢰하여 총신은 3월 23일까지 5월 첫 주에는 칼빈 5월 둘째 주에는 광신의 요약서를 게재키로 하다.
  ② 연구용역비는 3천만원을 한기승 목사가 후원하다.

③ 접수된 논문을 B5 소책자로 제본하여 목장기도회 1,000부(3개 신학교 논문), 공청회시 1,000부(강사자 6인 강의안), 총회시 2,000부(3개 신학교 논문 및 6인 강사자 강의안)
④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다.
서울 서북(6월 8일(화)), 중부호남(6월 11일(금)), 영남(6월 22일(화)) 오후 2~5시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강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하다. 지역별 찬성, 반대 1인으로 하기로 하다.
⑤ 차기 회의는 4월 27일 화요일 11시 30분 총회회관에서 소집키로 하다.

(3) 제3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4. 27(화)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소책자는 1,500부를 하기로 하고 후원은 부전교회가 하기로 하다.
② 공청회 일정, 장소, 강사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 6월 8일(화) 오후 2시 총회회관 대상은 서울, 서북이며 강사는 박용규 교수, 문병호 교수로 하기로 하다.
- 6월 11일(금) 오후 2시 광주중앙교회 대상은 중부, 호남이며 강사는 서철원 교수, 이국진 목사로 하기로 하다.
- 6월 22일(화) 오후 2시 부전교회 대상은 영남이며 강사는 서창원 교수, 이풍인 교수로 하기로 하다.
- 강의안은 A4 10포인트 20페이지 내외로 요청하기로 하고 요약문 1페이지, 3페이지를 추가적으로 요청키로 하다.
- 발제 시간은 각 30분으로 하기로 히다.

③ 차기 회의는 5월 28일(금) 오전 11시 30분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4) 제4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5. 28(금)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WEA 연구위원회 공청회 예산안 중 강사료는 원고료 20만원, 강의료 20만원, 여비 10만원으로 총 50만원 지출키로 하다.

(5) 제5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7. 7.(수)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다음 회의는 7월 28일(수) 오전 11:30에 갖기로 하다.
② 각 위원은 각자의 견해를 A4 1장 내외로 작성 제출하되 결론을 첨가하기로 하다.
③ 3개 공청회 결산을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
④ 총회최종보고서는 7월 28일에 결정하여 작성키로 하다.

(6) 제6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7. 29(목)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회보고서

총회에서 수임한 "WEA교류금지 헌의 건"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안에 대하여 총회 본회에서 결의하도록 보고한다.

가. 제1안 : 본 교단과 구성원은 WEA가 신복음주의이므로 가입하거나 교류해서는 안된다.

나. 제2안 : 제104회 총회 결의(WEA와 교류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를 유지하되 WEA의 신학적 흐름에 대하여 연구하고 주시한다.

총회보고서에는 신대원 교수회 연구논문 요약, 공청회 발제논문 요약, 5인 연구위원 견해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② 총회 배포용 도서 발간에는 신대원 교수회 연구논문, 공청회 발췌 논문, 5인 연구위원의 견해를 수록하되 2000부를 발간키로 하며 출판비는 한기승 위원장이 후원키로 하다.

3. 사업보고

1) 1차 공청회

(1)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오후 2시
(2) 장소 : 총회회관 2층
(3) 개회예배 : 총회장 소강석 목사
(4) 주제 :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5) 강사 및 강의 제목

① WEA와의 교류 (총신신대원 정승원 교수)
②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비판-
- WCC에 편승하여 로마 카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고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감 - (총신신대원 문병호 교수)

2) 2차 공청회

(1) 일시 : 2021. 6. 11(금) 14:00
(2) 장소 : 광주중앙교회
(3) 개회예배 :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
(4) 주제 :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5) 강사 및 강의제목

①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박사)
②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서철원 교수)

3) 3차 공청회

(1) 일시 : 2021. 6. 22(화) 14:00
(2) 장소 : 부전교회

(3) **개회에배** :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
(4) **주제** :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5) **강사 및 강의제목**
①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총신신대원 이풍인 교수)
② 세계복음주의연맹과의 교류 어떻게 볼 것인가? (총신신대원 서창원 교수)

4)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후원금 광주중앙교회(한기승목사)	13,000,000	광고비	2,500,000	2회
		인쇄비	2,884,000	소책자 1,000부(3개지역)
		1차 공청회	2,919,500	강의비,여비,현수막 장소사용비,식비 등
		2차 공청회	2,060,000	강의비 및 여비
		3차 공청회	2,180,000	강의비 및 여비
		잔액	456,500	
합계	**13,000,000**	**합계**	**13,000,000**	

5) 총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후원금 광주중앙교회 (한기승목사)	35,554,000	교수연구비	15,000,000	총신대, 칼빈대, 광신대 각 500만원
부전교회 (박성규목사)	2,884,000	목사장로기도회 책자발간비	2,884,000	1,000부
		공청회	12,543,500	3차 공청회 (서울, 광주, 부산)
		총회보고용 책자발간비	7,904,000	2,000부
		잔액	106,500	
합계	**38,438,000**	**합계**	**38,438,000**	

4. 수임안건 연구결과 보고

1. WEA와의 교류에 관한 총신신대원 교수회의 입장 – 총신신대원 교수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WEA와의 교류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지난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WEA와의 교류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WEA의 대표적인 신학자들 가운데 다수는 여전히 역사적 복음주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으며 WCC와는 신학적 차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단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문제에 대해 WEA와 논하고 상호 간의 협력과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본 교단의 선교현장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WEA 글로벌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공동합의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WEA는 로마 가톨릭, 세계교회협의회, 그리스 동방정교회, 세계오순절연맹 등의 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대방을 의식하며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려 하여 신학적으로 우려될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교단은 향후 WEA의 선교협의나 사역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1) WEA와 교류 및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복음주의 및 개혁신학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표현이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선교협의 내용 속에 사회 / 윤리적인 사역에 대한 협의 뿐 만 아니라 회심의 열매를 위한 복음전도 사역에 관한 협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성경적 선교에 있어서 불신자가 죄악을 인식하고 성경적 복음의 도전 앞에 부딪히는(confrontation)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놓치게 될 경우, 문화적 명령(Cultural Mandate)만을 수행하려다 전도적 명령(Evangelical Mandate)을 약화시켰던 WCC의 미시오 데이 신학노선이 범했던 것과 동일한 변질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높다.

3) 앞의 2항에서 지적된 두 가지를 경계함과 동시에, 본 교단은 WEA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략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본 교단의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예장 합동 교단은 한국교회의 장자 교단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위상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우리가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의 중심에 서야하는 것이다. WCC처럼 진리 수호는 포기한 채 교회 일치와 연합만을 추구하는 노선을 경계함과 동시에, ICCC처럼 신앙의 순결만을 외친 나머지 극단적 분리주의, 반사회주의, 반문화주의로 향하는 노선도 경계해야 한다. 1979년 총신교수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된 "총신의 신학적 입장"이 제시해 준 바와 같이, 본 교단은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전도 사역과 사회, 윤리적 책임사역을 함께 수행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개혁신학의 기치를 세계 교회 안에 높이 들어 올려야 할 것이다.

2.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칼빈대학교 연구위원회

WEA는 1846년에 결성된 '복음주의연맹'(EA), 1912년에 세계복음주의연맹(WEA), 1951년에 세계복음주의협의회를 걸쳐서 2001년에 다시 세계복음주의연맹(WEA)으로 개명되었다. 먼저, WEA의 전신인 EA의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은 교리진술서에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9가지인데, 언뜻 보면,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인정하고,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이신칭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 세례와 성만찬 등에 관해서 개혁파 교리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단지 개혁파의 엄격함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적 행보를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여러 측면에서 보이고 있다. 첫째, 2011년 7월 28일에 WEA가 WCC의 초청을 받아들여 WEA-WCC-가톨릭 공동합의서인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실행을 위한 "권고 사항들"을 발표하였고, 둘째, 1980년부터 WEA가 두 명의 가톨릭 대표들을 초청해서 개회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에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가톨릭교회와 WEA 사이 국제적 협의, 2009 - 2016"를 발표하였다. 셋째, 2013년에서 WCC 10차 부산 총회에서는 WEA 위원장이 WEA가 WCC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 이런 경향에 반대하여 이탈리아, 스페인, 말타의 WEA 지부들이 연합하여 WEA 참여를 중지하였다.

WEA의 신학은 그들의 신앙진술서에 따르면, 개혁파와 유사한 면이 많지만, 다소 우려되는 면도 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진술서에서는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그들이 가톨릭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핵심 관계자가 WEA의 신학이 가톨릭과 같다고 말하는 등 심히 우려스러운 행동을 하고 타 종교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나머지 타 종교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WEA가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데 두는 비중보다 WCC나 가톨릭과 연합활동을 하려는 데, 더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공익을 위한 일이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WEA와 연합활동을 할 수 있으나, 우리 개혁파 신학과 다른 신학적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단지 칼빈이 말한 대로, '말씀(복음)의 참된 선포와 성례의 정당한 시행', 즉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는 한, 교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한국복음주의 신학협의회에 합동측 신학교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교류를 할지라도 우리 개혁파의 정체성, 즉 성경무오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WEA와의 신학적 교류는 이런 성경의 영감과 무오를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고,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사안별로 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WEA에게는 WCC와 신학적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지 말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합동측이 WEA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거나 그 조직에 합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재의 느슨한 교류 형태를 유지하면서, WEA 관계자들 중 일부가 행했고, 행할 우려가 있는 가톨릭과 WCC의 신학적 연대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3.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광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일동
강민수 강신유 권혁상 김광혁 김정열 김주원 김태근 김호욱 박성수 박은식 백윤영 송재영
신은균 심강기 윤정길 이상흥 이원석 이재근 이정준 장 석 정대준 조상원 한수환 황성일

1846년 유럽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800여 명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을 결성하였다. 그 후 복음주의연맹은 1951년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연맹체인 NAE(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와 연합하면서 WEF(World Evangelical Fellowship)라는 새로운 조직이 되었는데, 2001년에 이름을 바꿔서 WEA(세계복음주의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가 되었다. WEA는 표면적으로는 복음주의적인 신앙고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WEA가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들 속에 합동교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WEA는 포용주의에 기초하여 교리보다는 연합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힐레(1996 - 2008, WEA 신학위원장)는 "복음주의연맹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글에서 WEA는 교회론이나 성령론이 다른 교단들, 예를 들어 안식일 교회, 오순절 교회, 그리고 가톨릭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17년 스위스에서 열린 GCF(Global Christian Forum)에서 WEA는 WCC, 바티칸, 동방정교회, 오순절 연합 대표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한다고 선언하였다.

WEA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죄 사함과 구원을 전파하는 일을 제쳐놓고 인권이나 복지를 증진하는 사회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벤서(1992 - 2001, WEA 국제총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정의를 실현하며 가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WEA는 유대교나 무슬림과도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2020년 4월 WEA 뉴스레터).

WEA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2019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WEA 총회에서,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했다. 또 2020년 4월에 발행된 WEA 뉴스레터는 종교자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무슬림과 협력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는 WEA가 모든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한다면서 그 종교들의 진리성도 함께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이 없어질 뿐더러 복음 전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WEA는 WCC와 같은 것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WEA는 교황청이 진행하는 교회 일치를 위한 각종 모임에 WCC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WCC와 행보를 같이한다.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와 WCC 그리고 WEA가 공동으로 작성한 "다종교 세상에서의 기독교적인 증인"(Das christliche Zeugnis in einer multireligiösen Welt)이라는 문서는 종교 다원주의에 기초한 것이며, 이 점에서 WEA는 WCC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쉴마허(현재 WEA 사무총장) 역시 "WEA는 WCC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말을 통해 WEA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기독교 구원관을 이미 포기하고 WCC처럼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비기독교적인 구원관을 간접적으로 지지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합동교단은 WEA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며, 교단이나 목회자 개인의 자격으로 그들과 교류하지 않아야 한다.

4. WEA와의 교류

정승원 교수(총신신대원)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교단이 아니라 연합기구이다. 교단은 신학적 정체성이 같고 나아갈 방향이 같은 교회들이 모여서 구성하지만 연합기구는 신학적 정체성보다는 사역(work)과 봉사(service) 차원에서 마음이 맞는 교단, 기관, 학교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 합동교단은 현재 WEA 회원이 아니며 가입한 적도 없다. 따라서 총회 차원에서 WEA와의 교류 단절 여부를 결의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다. 이미 104회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 결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논의하는 것은 총회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라 본다.

총신신대원 교수회의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는[15] 우선 2011 WEA, WCC, RCC 공동합의서인 "다종교 세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나타난 위험한 주장들을 조목조목 파헤치며 비판한 반면, 2016년에 발표된 "로마 가톨릭(RCC)과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국제 협의(2009-2016)" 문건에 대하여는 WEA가 RCC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복음주의적 입장을 전반적으로 고수하였다며 "[WEA는] WCC처럼 진리 수호는 포기한 채 교회 일치와 연합만을 추구하는 노선을 경계함과 동시에, [신근본주의의] ICCC처럼 신앙의 순결만을 외친 나머지 극단적 분리주의, 반사회주의, 반문화주의로 향하는 노선도 경계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16]

한편 WEA를 WCC의 노선을 걷고 있다고 비판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에 근거해서 WEA의 글들과 사역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WEA가 여러 기독교 단체나 다른 종교들과 접촉을 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이유로 살해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물론 좋은 목적이지만 타종교, WCC, RCC와 접촉할 때는 분명 오해받을 여지는 다분히 있다.

우리 합동 교단은 종교다원주의를 오랫동안 주창해온 감리교단과 WCC의 적극적인 회원인 통합측과 아직도 계시가 주어진다고 믿고 KNCC 회원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여성 목사가 총회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회원이다. 그렇다고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자 함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과 더 중요한 사역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WEA가 바로 이러한 목적과 방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15) 총신신대원의 다섯 명의 교수들이 연구한 보고서는 교수회의에 상정되었다. 신대원장은 채택하자는 동의와 재청을 받았고 가부를 묻자 "아니요"가 나왔으나 재청이 없었다.

16)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23-24.

5.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비판 : WCC에 편승하여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고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감

문병호 교수(총신신대원)

최근에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바(마 7:18), WEA는 그 신학적 정체성이 '아니요.'라고 판명되므로(마 5:37), 우리는 장로교 보수 개혁신학을 엄정하게 견지하면서, WEA와 그 어떤 교류도 금해야 한다.

1) **WEA는 신정통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므로 개혁신학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 WEA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그 상황적 의미에 치중하여 토착화(contextulization)에 빠짐으로써, 칼 바르트(Karl Barth)와 에밀 브룬너(Emil Brunner)를 비롯한 신정통주의자들과 현대 신학자들 및 성경 비평주의자들과 동일한 궤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죽산 박형룡 박사는 신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파괴적 비평"을 감행하고, "신복음주의"는 "허울 좋은 이름"일 뿐 실상은 "신자유주의 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

2) **WEA는 WCC에 편승하여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향하는 에큐메니칼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WCC 부산총회는 WEA가 WCC와 동류이며 그 전령이자 위장단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늘날 WEA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사업이나 지향점이나 추구 방식이 WCC와 거의 다름이 없다. 2011년에 WEA가 WCC, 로마 가톨릭과 함께 공표한 문건인 "다종교 세계의 기독교 증언(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은 이에 대한 분명한 증례가 된다. WEA 신복음주의자들은 '복음화'보다 인류의 '공동선'을 앞세우고 있으니, '복음주의자들(Evangelicals)'이라기보다는 '에큐메니칼주의자들(Ecumenicals)'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

3) **WEA는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꾀하며 종교개혁의 근본가치를 부인한다.** WEA와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일치를 위한 대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며, 사실상 서명만 앞 둔 시점에 있다. WEA는 1974년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 이후부터 WCC 및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와 공동 사업을 위한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급선회하였다. WEA와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소통은 "복음주의-로마 가톨릭 선교 대화(Evangelical-Roman Catholic Dialogue on Mission, ERCDOM)"를 통하여 본격화되었고, WEA와 "기독교의 하나됨 증진을 위한 교황위원회(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PCPCU)"의 신학적 대화를 통해 성경과 전통, 이신칭의 등의 교리가 중점적으로 거론되었으며, 1994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이 함께(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라는 모임에서 성경과 전통, 구원론, 마리아론 등에 대한 서로 간의 수렴된 입장이 매번 문서로 공표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WEA는 급격히 로마 가톨릭에 동화되어 왔다.

4) **WEA는 신학과 교리를 불문하는 세계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고, 사실상 개종금지를 주장한다.** WEA는 WCC, 로마 가톨릭과 함께 GCF(Global Christian Forum, 세계기독교포럼)를 만들어 20년 이상 활동하면서 모든 교회와 교회 단체의 에큐메니칼 일치(ecumenical unity)를 추구한다. GCF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명목상의 고백만 있으면 신학이나 역사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회원이 될 수 있다. WEA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와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우리의 공동 신앙(Our common faith)"이라는 이름하에, WEA

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일부 상이함은 있지만 교회로서 근본신앙의 조목을 공유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는 WEA가 기독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포기한 단체임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WEA는 타 종교나 비진리에 있는 기독교 내의 개종에 부정적이며, 심지어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 활동을 격려하고 도울 것을 권장한다.

5) WEA에 대한 총회와 우리의 입장

죽산 박형룡 박사는 WEA 신복음주의를 "신이단"이라고 칭하고, WEA의 지부하고 할 NAE를 "WCC 에큐메니칼 협의회 밑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유주의 이단을 묵인 내지 선포하는 사이비 보수주의자들의 단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것은 총회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는 1959년 11월 25일 승동교회에서 WCC 영구 탈퇴를 결의한 후, "NAE 회원은 총회와는 직접으로 관계가 없으나 총회를 어지럽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평이 있으니 교직자(목사, 전도사)는 탈퇴하기를 가결"하였다. 그리고 이를 총회 원칙과 정책을 결정하면서 재차 명령하였다(총회록 245, 438).

오늘날 WEA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주의,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의 길에 훨씬 더 깊이 들어서 있고, 로마 가톨릭과 WCC의 수하 노릇을 하며 종교개혁의 가치로부터 훨씬 더 멀어져 있다. 이러하니, 어찌 우리가 WEA와 양립할 수 있으며, WEA와의 교류를 거론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한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전 4:6).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마 5:37).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엄정하고 분명해야 한다. **WEA는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한다.**

Soli Deo gloria in aeternum(영원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6.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국진 박사(전주 예수비전교회)

WEA는 배교의 길, 종교다원주의의 길, 종교통합의 길을 가고 있기에,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항간에 널리 퍼져 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교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보면, WEA에 대한 과도한 억측뿐임을 알 수 있다. WEA는 적대시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세계교회 연합단체이다.

우선 WEA가 2011년 로마 가톨릭 그리고 WCC와 함께 합의한 문서인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을 주장하지 않으며,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금지하는 문서가 전혀 아니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종교 간의 대화란 종교 간에 서로 오해하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성하면서, 평화를 추구하자는 의미에서일 뿐이다. 지침 3항 "타 종교가 지지하는 시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번역은 오역(誤譯)이다. 오역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WEA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든 것은 안타깝다. 지침 3항은 다른 종교를 "잘 이해하여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일 뿐이다. 이 문서는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금지하자는 문서가 아니라, 전도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에 합의한 것일 뿐이다.

WEA가 참여하는 GCF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전제만 믿는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온갖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비난은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말이냐?"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단 말이냐?"라고 비난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발언의 맥락을 무시한 과도한 비난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기독교가 세례의 방식, 예정론 / 예지론, 무천년설 / 전천년설, 장로교 시스템/감독 시스템, 예배 시 악기 사용 / 무사용 등등과 같은 것들로 갈라져 왔는데, 그런 차이점들을 잠재하고 연합하자는 의도였을 뿐이다. WEA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신앙고백에서, 또한 여러 문서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식의 맥락을 벗어난 비난은 옳지 않다.

WEA가 전통적인 구원관을 포기하고 사회복음에 치중한다는 비난은 과도한 비난이다. WEA는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순수한 복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 WEA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다.

WEA와 안식교나 유대교와 연합하려고 한다는 비난도 과도한 비난이다. 물론 안식교회와 회동을 하고 유대교와 회동을 하고 일종의 합의문 같은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WEA가 종교통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공동 선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 가운데 전통 기독교의 진리를 양보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

교류/단절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수준에서 교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완벽하게 우리와 똑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만 교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현재 알미니안 신봉교단(감리, 성결)이나 WCC가입교단(감리, 통합)이 포함된 한국교회총연합과도 교류 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알미니안 신학을 신봉하게 된 게 아니다. 교류의 수준/단계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WEA는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건전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연합기관이다. 우리 교단에서 교류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7.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서철원 교수(총신신대원)

WEA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도저히 기독교의 한 종파라고 할 수 없는 조직들과 함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I. WEA 신학위원회가 제시한 복음주의 신학은 다음과 같다.

1. 성경의 지상권위. 2. 삼위일체교리 3.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 4. 이신칭이 교리

II. WEA는 종교다원주의교리를 채택하고 전통적인 교리들을 다 버린 로마교회와 합치기 위해 진력한다.

종교다원주의 교리 확립 〈(1)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특별계시를 받아가졌으므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여기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조항이 없다 (2) 모슬렘들도 아브라함의 핏줄에 연결되고 창조주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다. 여기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조항이 없다. (3)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진지하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유신실재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그들이 로마교회에 등록은 안했어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에게도 영원한 구원이 보장될 수 있다.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삼위일체교리, 하나님의 성육신의 교리, 내세 구원들을 다 부정하였다.

현세에서 자기실현 혹은 자유의 구현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래 이신칭의 교리 철저히 부정.

WEA는 이런 로마교회와 합치기 위해 1970, 1980년대부터 접촉을 시작한 후에 1988, 1990년 10월, 1993년 ,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에 교황청 협의회와 협의하여 교황을 모신 로마교회와 합치기로 합의하였다.

III. WEA는 삼위일체교리, 하나님의 성육신의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다 부정하는 안식일교와 합치기 위해 2006년 8월, 2009년 8월 협의하여 안식일교와 합치기로 하였다.

IV. WEA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악신으로 단정하고 사탄 (루시퍼)을 선신으로, 또 유일 정통신으로 삼는 탈무드 유대교와 합치기 위해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

지금 소위 유대인들은 거의가 (약 90%이상) 바빌론 탈무드 유대교로 개종한 카자리아인들이다.

V. WEA는 2010년 10월, 2014년 5월, 2015년 6월, 2017년 4월, WCC와 협의하여 WCC와 합치기로 합의하였다.

VI. 우리 합동측 교회는 WEA 에 가입하거나 교류하는 것은 불가하다.

WEA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이제껏 이단과 이교들과 합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우리 합동측 교회는 1959년 WCC 가입 반대후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애왔다.

우리는 우리의 바른 신앙과 신학을 지키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

합치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는 WEA에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자들이 우리 합동측 교회에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

우리 합동측 교회는 우리의 시도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8.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이풍인 교수(총신신대원)

현재 우리 교단은 지난 몇 년 동안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복음주의연맹)와 관 련된 논의들을 하고 있다. 104회 총회에서 'WEA와의 교류 단절 청원'을 부결시켰다.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에 537명, "단절해야 한다"에 448명이 투표하여 결과적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105회 총회에 WEA와의 교류 관련 건이 다시 헌의 되어 특별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총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재론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난 105회 총회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단 몇 시간 만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WEA 특별위원회가 지역별로 찬반 공청회를 진행하여 WEA에 대해 교단 내 목회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힘썼다.

공청회에서 WEA와의 교류에 대해 필자는 찬성 입장에서 글을 쓰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할 부분이 있다. 비록 필자가 찬성을 표명했지만, 이것은 결코 WEA에 가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WEA에 가입하자는 헌의안은 올라온 적이 없다. 104회 총회에서 교류 단절 청원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못내 아쉬운 마음이 있어 올라온 청원이기에, 이 사안은 WEA에 가입하기 원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살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교류를 완전히 단절하자는 취지의 헌의안이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교단은 WEA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WEA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절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에 WEA와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교류 정도만 하자는 입장이다.

WEA에 대해 살피면서 우리 교단이나 목회자들이 WEA에 대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우리 교단 인사가 WEA에 깊이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도부나 결정하는 위치에 있은 적이 없기에 그냥 밖에서 WEA를 보고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는 WEA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 현저히 떨어진다. WEA는 결코 하나의 신학적인 색깔을 지니고 있는 단일조직이 아니다. WEA는 복음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협의회로 현재 다양한 교단들과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WEA의 멤버십은 크게 3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지역과 국가적 연맹, 2) 협력회원, 그리고 3) 교회 네트워크들과 교단들이다. 협력회원의 구성은 실로 다양하여 성경 번역에 주력하는 위클리프선교회, 아동 사역에 집중하는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네비게이토선교회, 오픈도어 선교회, 난민들을 위한 국제협회, 성경 보급에 힘쓰는 Holy Bible Society와 아시아신학협의회(ATA,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언급한 몇몇 단체들만 보아도 협력기구들이 얼마나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WEA의 회원이다. 우리 교단은 2014년에 한기총을 탈퇴했기에 우리 교단과 WEA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굳이 연결고리를 찾자면, 우리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와 우리와 형제 교단인 미국장로교회(PCA)가 WEA의 회원이다. 또한 우리 교단 산하 교회들이 후원하는 단체들이 WEA의 회원이다. 위클리프선교회, 월드비전, 컴패션, 네비게이토선교회, 오픈도어선교회 등이다. 교회들마다 이런 단체들을 통해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교단이 가입하지도 않은 WEA와 단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만약 우리 교단이 WEA에 정식으로 가입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WEA의 신학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는 단계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단이 WEA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기에 단절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나는 104회 총회 결의대로 WEA와 교류 단절을 하지 않는 것에 찬성한다. 만약 교류 단절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WEA에 가입한 단체들인 컴패션, 월드비전,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을 후원해온 교단 산하 교회들에 이 단체들과의 교류나 후원을 금지시킨다면 목회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써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부디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9. WEA와의 교류 가능한 것인가?

서창원 교수(총신신대원)

WEA의 신학적 선언문 자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아파하며 하나되기를 원했던 교훈을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는 말씀에 비추어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의 신학적 기조와 같은 의미인지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말은 같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는 우리와 다른 것임을 그들의 실천적 행동에서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류를 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과 그들과 교류를 단절하면 이미 그들과 교류하며 협력하고 있는 많은 건전한 교단이나 단체들과 단절해야 하며 국제 관계에서 고립되거나 분리주의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것,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과 교류를 통해서 개혁신학적 입장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개혁신학 기조하에서 함께 협력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상을 내세운다.

그러나 개신교 역사 속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논쟁이나, 조지 휫필드와 요한 웨슬리와의 신학적 분쟁에서 드러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사이의 논쟁이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진영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대화의 장에서 상대편이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및 보수주의로 전향한 사례보다 보수진영에서 자유 진영으로 흡수된 일이 대부분이었다. 감리회와 로마 가톨릭, 혹은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과의 대화에서 모두 다 가톨릭의 견해에 동조하거나 타협을 이룬 것이었지 로마 가톨릭을 변화시킨 사례는 하나도 없다. 또한 WCC에서 개혁파 신학을 견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가담한 통합측의 현재 모습은 WCC의 사조에 더 깊이 들어가 있다. 더욱이 우리 교단은 국제 연합 기구에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도권을 쥐고 행사할 만한 지도자를 키운 적이 없다. 국제 단체들이 한국교회와 협력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리더십을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적 자원 때문이다.

국제 연합기구와의 협력 이전에 우리는 같은 신학과 같은 실천사항들을 견지하는 고신측과 합식측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단만이라도 공교회성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 교단 내의 지교회가 지교회로서의 역할보다는 개교회주의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된 신학적 입장과 통일된 예배 모범이나 직제 및 권징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공교회성을 제대로 회복하기만 한다면 전도와 선교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1970년도 세계 기독교 인구는 33.2%였고 2020년도에는 33.3%에 그쳤다. 그렇게 활발한 WCC나 WEA의 활동이 있었음에도 50년 동안 기독교 인구는 0.1% 증가에 그쳤고 그 중에 로마가톨릭이 49.5%이며 순수한 개신교는 22.6%에 불과하였다. 그 사이 이슬람의 증가는 75.6%나 되었다.

교단의 국제 교류는 이미 교단이 제시한 종교다원주의 표방이나 여성안수 허용, 동성애 찬성 및 WCC와의 교류하는 교단이나 단체는 금한다는 것을 준수한다면 WEA와의 교류 문제도 답이 분명하다. 대신 교리적으로나 실천사항에 있어서 종교다원주의나 포용주의를 전혀 배제하는 ICRC(국제개혁교회연합,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mred Church)에 가입하는 것이 옳다. WCC는 양의 우리에 늑대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며 WEA는 양의 우리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함께 하는 것이다. 교리적 순수성을 지킴이 교회 성장의 확실한 밑거름이다.

〈WEA 연구위원 보고서〉

WEA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한기승 목사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의 신학과 연합 혹은 교류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다. 신학자들의 전유물 정도로 여겼던 WEA에 대한 견해들이 이미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WEA에 대한 정보를 접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제105회 총회에서 WEA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본 연구 위원회는 교단 산하 신학대학(총신, 칼신, 대신, 광신) 교수회에 각 신학대학의 WEA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아 기독신문에 기고했다. 또한 3차례(서울 서북지역 서울 사무실, 중부·호남지역 광주중앙교회(한기승목사 시무), 영남지역 부산부전교회(박성규목사 시무)에서 찬반 공청회 후, WEA 연구위원 5인(한기승목사, 임종구목사, 박성규목사, 추성환목사, 장일권목사)들이 각자 WEA에 대한 견해를 연구하여,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WEA 연구위원장인 본인은 WEA와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WEA와 신복음주의

WEA는 1846년 상호교제와 신앙의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주의 연맹(Evangelical Alliance)을 조직했고, 1951년 WEF(Evangelical Alliance Fellowship)로 변경하였으며, 2001년 다시 WEA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계몽주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의 물결이 교회의 존립을 파괴하므로, 초기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인 아치볼드 알렉산더, 찰스 핫지, 벤쟈민 워필드, 존 그레샴 메이첸이 개혁파 개신교 정통신학을 사수했다. 이들을 '근본주의'라고 칭한다. 이 칭호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신앙의 근본들을 재확인하는 데서 붙여진 칭호이다.

그러나 1920년 스코퍼스(Scopes) 재판을 계기로 극단적인 근본주의가 발흥하게 되었고,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ICCC(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가 설립되어 반사회적, 반지성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에 중도적 근본주의자인 헤럴드 오칸카, 칼 헨리, 카넬 등의 주도로 1942년 전국 복음주의 협회 NAE(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를 창설함으로 '신복음주의'가 탄생하였다.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문병호 교수는 'WEA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제 1차 토론회에서 NAE를 WEA의 미국 지부라고 규정하고 "신복음주의자들은 대중성이 없는 정통성은 무익하다고 주장하였다.[17]

그리고 신복음주의자인 칼 헨리, 변증가인 버나드 램은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로, 에큐메니컬 정통파로 불르는 도널드 블로쉬는 포용주의로, 클라크 피녹은 개방신학을 주장하여, 이들이 WEA가 포용주의와 신복음주의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주었다.

WEA의 대표자들

WEA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롤프 힐레, 토마스 존슨, 슈마허가 있다. 롤프 힐레는 로마 가톨릭과 건설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더 깊은 일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토마스 존슨은 로마 가톨릭이

17) 문병호,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p36.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경의 영감, 삼위일체론, 기독론의 신앙을 공유해 왔으며 단지 구원론 문제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이었으나 해결점을 찾았다고 하였다.[18] WEA 신학위원장이었던 슈마허는 2012년 WCC 제10회 부산 총회에서 "WEA와 회원 교회들은 WCC의 헌장에 동의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19] 이것은 WEA가 WCC와 신학적 일치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기는커녕 합리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류 불가능의 근거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본인은 우리 교단이 WEA에 가입 하거나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밝힌다.

첫째, 신복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현 WEA는 1846년에 시작할 때 고백했던 신앙 진술(Statement of Fath)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846년 신앙 진술을 근거로 개혁주의와 다름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WEA는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받아 들임으로 성경 비평주의자들의 새 관점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WEA는 WCC에 편성하여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WEA는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과 선교대회, 교황위원회와 신학대회, 주요 교리에 대한 하나됨을 공포하는 모임(ECT)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WEA는 WCC, 로마 가톨릭과 함께, GCF(세계기독교 포럼)를 만들어 20년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단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안식교)와 신학적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여섯째, WEA는 이슬람과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뉴스파워에서[20], WEA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인 나흐들라툴 올라마(이하 NU)와 상호 협력하기로 국가 모스크 성명서에 서명한 것을 미국 크리스채너티 투데이가 보도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NU 사무총장 야햐 촐리 스타쿠프는 조화로운 환경에서 서로 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WEA 사무총장 슈마허는 NU의 협력이 진실 주장을 경시하는 학문적 경향에 반대되는 깊은 신학적 대화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것은 WEA가 이슬람과도 함께 교류하고 있는 포용주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수 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WEA는 WCC 및 로마 가톨릭 교리를 거부하기는 커녕 합리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WEA는 로마 가톨릭과 WCC와 함께 에큐메니컬 신학과 활동을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WEA는 신복음주의의 포용성, 혼합성, 다원성의 신자유주의뿐 아니라 안식교, 이슬람 등과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WEA는 정치적이거나 지방색의 문제가 아닌 신학적인 문제이다. WEA의 신학이 우리 교단의 정체성으로 삼는 개혁주의 신학과 같은가 또는 다른가의 문제일 뿐이다. WEA가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신복음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는 WEA에 가입하거나 교류한다는 것은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를 허무는 것이 될 것이다.

일찍이 본 교단 제44차 총회에서 WCC 영구 탈퇴와 NAE(WEA)는 총회를 어지럽게 하는 요인이므로 교직자(목사, 전도사)는 탈퇴하기로 가결하였다.[21] 그리고 박형룡 박사는 우리 교단 교역자들이 NAE(WEA)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것은 총회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행동인 동시에 신자유주의 또

18) op. cit. p. 65.
19) op. cit. p. 67.
20)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50004&section=sc4&section2=
21) 제44차 총회 회의록 p.238, 245

는 신복음주의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였다.[22]

그러나 혹자는 선교를 위하여 WEA와 교류를 금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WEA와 선교를 위해서 교류를 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우리와 신학이 다른 안식교, 카톨릭, WCC, 이슬람과 연합하여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들과 선교할 수 없다면 그들과 교류하는 WEA와 어떻게 선교를 함께 한다는 것인지 다시 되묻고 싶다. 오히려 진정으로 선교를 위한 것이라면 WEA와 선교적 교류 협력 보다도 우리 총회의 GMS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선교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WEA는 그 신학과 구성원과 사역이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개혁신학이 아닌 포용주의와 신복음주의이므로, 본 교단과 그 구성원은 WEA에 가입 또는 교류, 협력해서는 안 된다.

22)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IX. 현대신학비편 하권』, (제 13장 신복음주의 신학). 단 NAE 부분은 거의 『신복음주의 비평』에만 수록되어 있다.

WEA 연구위원 보고서

부위원장 임종구 목사

1. 경과

1.1. 제104회 총회 결의

제104회 총회에서는 신학부가 “총회가 공식적으로 WEA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니 교류할 것인가 아니면 단절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우리 교단이 지켜오고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기에 WEA와의 교류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하였고, 표결에 부쳐 WEA와의 교류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의되었다.

1.2. 국내신학대학원 연구의뢰

제105회 WEA연구위원회는 국내신학대학원 6곳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의뢰하고 3곳의 연구결과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교류금지를 찬성한 곳은 1곳(광신대), 교류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곳은 2곳(총신대, 칼빈대)로 교류금지를 반대하는 곳이 우세하였다.

1.3. 연구공청회

서울, 광주, 부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6명의 교수들이 각각 교류금지 찬성(문병호, 서철원, 서창원)과 교류금지 반대(정승원, 이국진, 이풍인)로 열렸다. 공청회 결과 WEA의 신학에 대해 많은 지식을 총회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교류와 관련해서는 신학적교류는 금지하되, 범기독교적인 차원의 일반적인 교류는 가능하다는 총회장 소강석목사의 의견을 비롯, 동성애대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범 기독교차원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서철원교수의 의견등이 돋보였다.

2. 결론

WEA는 본 교단과 무관한 단체이므로 제104회 총회결의, 국내신학대학원 연구의뢰결과, 연구공청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104회 결의를 유지하되, WEA에 관해서는 신학적 흐름을 교단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A 연구위원 보고서

서기 박성규 목사

1. 개요

제105회 총회에서 수임한 안건을 본 위원회는 6개 신학대학원(총신대학교, 대신대학교, 칼빈대학교, 광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고신대학교)에 위촉하여 연구하기로 하였으나 3개 신학대학원(총신대학교, 칼빈대학교, 광신대학교)만 참여하였다. 그 후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제출된 신대원 연구논문과 공청회 발제 논문을 보면서 총회가 수임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가인 교수들의 신학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위원은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보고서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제105회 총회 수임 안건

경중노회장 추성환 씨가 헌의한 WEA 교류 금지 헌의의 건은 WEA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토록 하고,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23]

3. 세 신학대학원의 WEA 교류 금지에 대한 입장

(1)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입장

1) 지난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바[24]와 같이 WEA 교류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2) 그러나 WEA와 교류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첫째, WEA와 교류하면서 역사적 복음주의 및 개혁신학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표현이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선교협의 내용 속에 사회 / 윤리적인 사역에 대한 협의 뿐만 아니라, 회심의 열매를 위한 복음전도 사역에 관한 협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3) 앞의 두 가지를 경계함과 동시에, 본 교단은 WEA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략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본 교단의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WCC처럼 진리 수호는 포기한 채 교회 일치와 연합만을 추구하는 노선을 경계함과 동시에, ICCC처럼 신앙의 순결만을 외친 나머지 극단적 분리주의, 반사회주의, 반문화주의로 향하는 노선도 경계해야 한다.[25]

(2)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입장

1) WEA의 신학적 입장이 성경적이고 건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2) WEA와의 교류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3) 교단 협력에 있어서는 신학적 동반자로서 우리 교단의 본질적인 신학에 동의하는 교단과는 신

---

23) **제105회 총회결의 및 요람**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20), p. 92.
24)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교류 금지 건 : WEA가 우리 총회가 지켜오고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어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학부 보고에 대하여 열띤 논쟁이 발생하니, 전자투표를 시행한 결과 신학부 보고에 대하여 찬성 537명, 반대 448명으로 신학부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제104회 총회결의 및 요람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9), p. 124.
25)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전도국, 2021), pp. 32-33.

학적으로 교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역적 동역자'로 선교적 과제를 협력할 수 있다.

4) 왜냐하면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인 동성애, 동성혼 문제나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 교회와의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26]

(3)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입장

1) WEA는 복음 전도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타종교 포용주의를 취하고 있다.
2) WEA는 WCC 및 로마가톨릭과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는 지엽적인 현상이 아니라, WCC와 궁극적인 방향을 함께 한다는 인식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3) 그들이 WCC 및 로마가톨릭과 함께 작성한 공동문서는 진정한 복음 전파의 의미를 왜곡하는 문서이며, WEA가 WCC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쉴마허가 개인적으로 쓴 글들은 위와 같은 생각들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합동 교단은 WEA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며, 교단이나 목회자 개인의 자격으로 그들과 교류하지 않아야 한다.[27]

(4) 소 결론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와 칼빈대학교 신대원 교수회는 신학적으로는 교류할 수 없지만, 사역적으로는 교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광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는 사역적 교류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4. 공청회에서 발제한 교수들의 WEA 교류 금지에 대한 입장

(1) 1차 공청회, 서울 서북 권역

1) 정승원 박사의 견해

우리 교단은 WEA에 가입한 적도 없고, 회원도 아니다. WEA와 교류를 다루겠다면 통합교단과 순복음교단과 함께 (한교총) 회원으로 섬기는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28]

2) 문병호 박사의 견해

WEA는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한다.[29]

(2) 2차 공청회, 중부 호남 권역

1) 이국진 박사의 견해

사역적 교류는 가능하다. WEA가 우리의 교리에 간섭한다면 월권이다. 적어도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더라도 (교류를) 단절하자고 할 것은 아니다.[30]

---

26) 칼빈대학교 신대원 교수회, "WEA의 신학적 입장과 역사적 행보 분석,"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전도국, 2021), pp. 65-66.

27) 광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전도국, 2021), pp. 91-93.

28) 정승원, "WEA와의 교류," 「**총회 105회기 WEA 연구위원 공청회 자료집**」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전도국, 2021), pp 29-30.

29) 문병호,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비판," 「**총회 105회기 WEA 연구위원 공청회 자료집**」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전도국, 2021), pp. 66-71.

30) 이국진,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 105회기 WEA 연구위원 공청회 자료집**」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전도국, 2021), pp. 104-107.

2) 서철원 박사의 견해

우리 교단은 WEA에 가입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성경적 신앙과 신학을 다 버리게 될 위험이 크다. WEA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 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31]

(3) 3차 공청회, 대경 부울경 권역

1) 이풍인 박사의 견해

WEA는 우리 교단과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기에 교류 단절이나 지속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혹시 멤버십(가입)을 가지려 한다면 지금보다 더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32]

2) 서창원 박사의 견해

WEA가 연합활동을 위한 방편으로 포용과 관용이라는 문을 즐겨 사용할수록 신학적 변질과 타협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교류를 금해야 한다.[33]

(4) 소 결론

찬반 양측의 입장이 매우 팽팽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한쪽의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의 각 신대원 교수회의 연구 논문을 종합해 볼 때 두 총신대학교 신대원과 칼빈대학교 신대원은 신학적 교류는 경계해야 하지만, 사역적 교류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광신대학교 신대원은 신학적 교류와 사역적 교류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

공청회 발제 논문과 공청회는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여 어느 한쪽의 결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은 우리 총회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가 가진 원칙을 준용하면 좋겠다.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의 세계 교회 교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동반자 관계 그룹(신학적으로 일치하는 최상급 교류 단계) 2) 선교협력 교류 그룹(선교 현장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단계) 3) 일반협력 교류 그룹(통상 교류하며 선교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 4) 해외 한인교단 그룹.[34] 이 네 기준으로 볼 때 WEA와의 교류는 1단계는 아니어도 2단계 혹은 3단계로 교류는 가능할 것이다. 제105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중에는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발전을 위하여 본 총회가 연합 기관 통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다."[35]가 있다. 그 하나됨 안에는 한교총 내에 소속된 WCC 가입교단들도 있다. 이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교류를 하지 않아도 사역적으로는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105회 총회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WEA와 신학적 교류는 하지 않아도 사역적 교류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끝)

---

31) 서철원,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총회 105회기 WEA 연구위원 공청회 자료집**」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전도국, 2021), pp. 144-147.

32) 이풍인,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 105회기 WEA 연구위원 공청회 자료집**」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전도국, 2021), pp. 162-164.

33) 서창원, "세계복음주의연맹과의 교류, 어떻게 볼 것인가?" 「**총회 105회기 WEA 연구위원 공청회 자료집**」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전도국, 2021), pp. 183-186.

34) 박용규,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제105회 총회 보고서**」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기획행정실, 2020), pp. 572-573.

35) **제105회 총회결의 및 요람**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20), p.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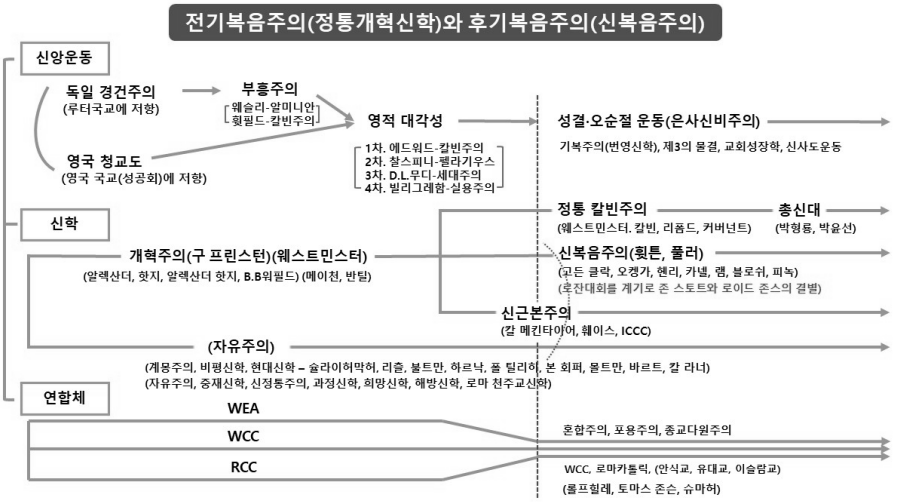
WEA 연구위원 보고서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 장일권 목사

WEA에 대한 연구보고서(총신대, 칼빈대, 광신대)를 읽고, 공청회(3차)에서 교수들의 발제내용(찬,반)과 질의 응답의 토론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역사적 복음주의'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신학 입장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WEA)'과의 교류 문제이기에, WEA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또 WEA에 영향을 입힌 신학자와 신학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현재 WEA의 신학적 입장과 활동에 대해 연구보고 및 발제를 해야 WEA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특히 WEA를 살펴볼 때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신복음주의 진보신학을 통해 받은 영향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복음주의 신학자의 신학적 입장과 역사적 발전과정이 생략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기복음주의(정통개혁신학)와 후기복음주의(신복음주의)'의 신학과 역사를 아래와 같이 도표로 설명하고자 한다.



〈도표1〉 36)

도표를 단순화해야 하기 때문에 신복음주의 시대에 개혁신학의 역사 전개는 자세히 표기하지 않았으며, 또 로잔대회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대회도 생략하였다. 이 도표에서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전수한 학교는 지면상 미국 신학교로만 표기하였다.

36) 이 도표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역사신학자 로저 올슨(Roger E. Olson)의 『A History of Evangelical Theology, 복음주의 역사신학자 브라이언 스탠리(Brian Stanley)의 제자 이재근 박사의 『세계 복음주의 지형도』, 이안 머리(Iain H Murray)의 『분열된 복음주의』를 참고하였다. 또한 복음주의 역사시리즈 (1권 복음주의 발흥;마크놀, 2권 복음주의 확장;존 울프, 3권 복음주의 전성기;데이비드 W. 베빙턴, 4권 복음주의 분열;제프리 R. 트렐로어, 5권 복음주의 세계확산;브라이언 스탠리)도 참고하였다.

1. 복음주의 시대

복음주의 시대의 신앙운동과 신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 특징만 간략하게 살펴본다.

1) 신앙운동

복음주의는 독일의 경건주의와 영국의 청교도 운동으로 시작된다. 성령의 역사로 개인의 내재적 경험, 곧 '회심과 경건'을 중시하는 부흥운동이 특징인데, 칼빈주의(조지 휫필드, 조나단 에드워드)와 알미니안주의(요한 웨슬레), 그 뿐 아니라 펠라기우스주의(찰스 피니), 세대주의(D.L.무디), 실용주의(빌리 그레함)로 혼합된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문제점이다.

2) 신학

계몽주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슐라이어막허, 리츨 등) 비평신학이 성경의 무오성을 무너뜨리자 여기에 대항해 구 프린스턴[37],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개혁신학자들이 '성경의 무오성' '천년왕국'에 대해 종교개혁 신학을 지키게 된다. 그러나 극단적 근본주의로 교회 분열이 일어난다(칼 메킨타이어, 훼이스신학교, ICCC).

2. 신복음주의 시대[38]

세속문화와 사상에 오염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지 못하고 극단적 고립주의에 빠진 근본주의를 개혁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에 중도적 신학노선의 신복음주의가 탄생한다(해럴드 오켄가, 칼 헨리, 에드워드 카넬).

1) 신앙운동

복음주의 시대의 신앙운동이 칼빈주의 뿐만 아니라 혼합된 복음주의 운동이었다. 반면에 신복음주의 시대에 일어난 신앙운동은 성결 오순절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오순절의 은사 신비주의와 기복신앙(번영신학)으로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교회 성장학, 신사도 운동으로 나아갔다. 신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설립된 풀러신학교가 이제는 '교회성장학(도날드 맥가브란)'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피터 와그너)'을 주도하게 된다.[39]

2) 신학

찰스 피니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설립한 진보적 신학의 휫튼 대학교[40] 출신인 칼 헨리, 카넬, 빌리 그래함이 반지성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복음의 문화적 상황화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중도적 신학을 세우려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정통주의(버나드 램), 포용주의(도널드 블로쉬), 종교다원주의(클라크 피녹)로 나아가게 되었다.[41]

---

37) 칼빈의 종교개혁으로 존 낙스에 의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탄생했고, 개혁신학적 청교도에 의해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웠다. 반면 대륙(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미국의 칼빈 신학교를 세웠다. 복음주의 시대에 장로교가 세운 초기 프린스턴 신학교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게 된다.

38) WEA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총신, 칼빈대에서 전기복음주의의 신앙진술(9개항)을 소개하지만, 신복음주의(후기복음주의) 신앙진술(7개항)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제자 문병호 교수는 신복음주의의 신앙선언(7개항)을 비판하고 있다.(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p38-41)

39) 이재근, 세계복음주의 지형도, 서울, 복있는 사람, 2015, p.112-115. 저자는 그 뿐 아니라 '풀러신학교는 초기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최전방에 내세운 선언적 구호와 무기로서의 '성경무오'에 대한 공식선언을 서서히 포기했다'라고 말하면서 진보적 신복음주의로 나아가게 된다고 지적한다.

40) 로저E.올슨 저, 이종원·박욱주 옮김, 『복음주의 신학사 개관(A History of Evangelical Theology)』, 서울, 크리스천투데이, 2017, p108.

3. 세계 복음주의 연맹(WEA)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복음주의 시대(16C ~ 20C초)에는 칼빈주의 정통신학을 지키려 하였다. 그러나 신복음주의가 시작된 후(1942년)부터 신복음주의 신학과 함께 WEA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복음주의의 신학은 신정통주의(칼 바르트), 자유주의 신학의 노선에 서서 WEA에 혼합주의, 포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 안식일교회, 유대교뿐 아니라 이슬람과도 연합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현재 WEA는 신복음주의란 용어만 지워버린 상태로 겉모습을 포장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4. 결론

위의 도표를 분석하면, 신앙운동과 신학의 영향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WEA)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신복음주의 진보신학자들의 신학, 곧 혼합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를 수용하며 WCC와 로마 천주교회를 비롯한 다른 종교와 연합하려는 WEA와 교류를 찬성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를 범하는 일이다.

신학은 중립지대가 없다. 성경의 '무오성(축자영감)'에서 후퇴하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잘못되고 교회는 무너진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과 근본주의 신학 사이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신복음주의 신학의 WEA와 교류는 절대 불가하다.

금번에 시행된 WEA의 연구(공청회)를 계기로 우리 교단과 신학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 교단의 신학은 정통 칼빈주의 개혁신학이다. 개혁신학은 언약사상으로 전개되는 구속사(기본 구조) 위에 '삼위일체 교리(니케아 신경, 381) - 성육신 교리(칼케돈 신경, 451) - 이신칭의 교리(종교개혁)'의 사상체계를 이룬 하나의 신학적 시스템이다. 이 신학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도표에서 보여 주듯이 교회를 세우는 바른 신학(교리)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성경적 신앙운동과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 시대적 문화의 상황화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화적 상황이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의 교회론에서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문화적 상황의 다양성을 깊이 연구하고 보강해야 할 것이다.[42]

우리 교단 선배들은 건전한 전기 복음주의(개혁신학)와 신앙운동(1차 영적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드)의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후기 복음주의(신복음주의) 곧, 혼합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학을 경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WEA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41) Ibid., 136-140, 175-177, 182-187, 200-207.
42) 장일권 외 14인, 성육신 목회 플랫폼 처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20.

참고문헌

〈도서〉

Clyde L. 맨슈렉. 심창섭 옮김. 『세계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2.
J.I.패커. 옥한흠 옮김. 『근본주의와 성경의 권위&자유주의』. 서울: 개혁주의출판사, 2017.
김남식. 『교회 연합운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20.
김의환. 『현대신학 개설』.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김진원 편저. 『WCC와 WEA 실상과 허상』. 전주: 진리와 사랑, 2020.
데이비드 W. 베빙턴. 채천석 옮김. 『복음주의 전성기』. 서울: CLC, 2012.
로저 E. 올슨. 김의식 옮김.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IVP, 2021.
로저 E. 올슨, 애덤 C. 잉글리쉬. 김지호 옮김. 『신학의 역사』. 고양: 도서출판100, 2019.
로저 E. 올슨. 박동식 옮김. 『신학 논쟁』.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로저 E. 올슨. 이종원, 박욱주 옮김. 『복음주의 신학사 개관』. 서울: 크리스찬투데이, 2017.
마크 A. 놀. 한성진 옮김. 『복음주의 발흥』. 서울: CLC, 2012.
브라이언 스탠리. 이재근 옮김. 『복음주의 세계확산』. 서울: CLC, 2014.
스탠리 그렌츠. 신재구 옮김. 『20세기 신학』. 서울: IVP, 1997.
이안 머리. 송용자 옮김. 『새로운 영적 각성을 위한 오래된 복음주의』.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이재근. 『세계 복음주의 지형도』. 서울: 복있는사람, 2015.
존 울프. 이재근 옮김. 『복음주의 확장』. 서울: CLC, 2010.
제임스 패커, 토마스 오덴. 정모세 옮김. 『복음주의 신앙선언』. 서울: IVP, 2014.
제프리 R. 트렐로어. 한동수 옮김. 『복음주의 분열』. 서울: CLC, 2020.
조나단 에드워즈. 정성욱 옮김. 『신앙감정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논문〉

김요섭.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역사와 활동』. 신학지남 86(2), 2019.
라영환.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신학적 입장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86(2), 2019.
롤프 힐레, 이승구 역. 『복음주의 신학의 미래와 21세기 교회에서의 그 선교적 도전들』. 성경과 신학 39권, 2006.
방연상.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그리고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2013.11,
성남용. 『한국교회의 WEA논쟁과 지향해야 할 과제들』. 신학지남 86(3), 2019.
정원래. 『WEA와 한국교회』. 신학지남 86(2), 2019.

〈연구 보고서〉

광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일동.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광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WEA연구보고서, 2021.
문병호.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비판』. 총회105회기 WEA연구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21.
서창원. 『세계복음주의연맹과의 교류 어떻게 볼 것인가?』. 총회105회기 WEA연구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21.
서철원.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105회기 WEA연구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21.
이국진. 『개혁주의 신학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105회기 WEA연구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21.
이풍인.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105회기 WEA연구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21.
정승원. 『WEA와의 교류』. 총회105회기 WEA연구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21.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 WEA연구보고서, 2021.
칼빈대학교 WEA 연구위원회.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칼빈대학교 WEA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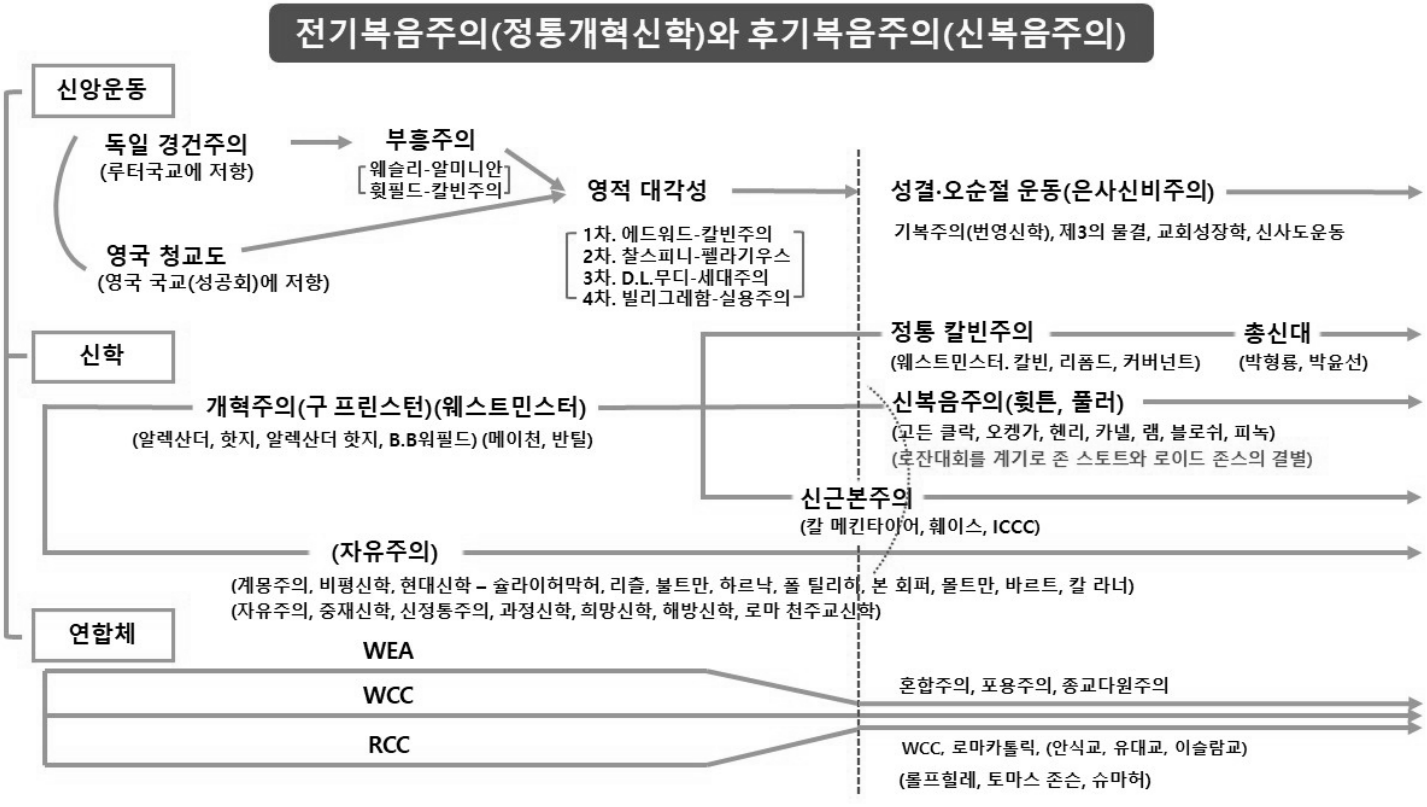


도표 1. 전기복음주의(정통개혁신학)와 후기복음주의(신복음주의) 〈상세 보기〉

WEA 연구위원 보고서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 추성환 목사

1. 서언

본 위원은 WEA와 관련된 질문들, WEA란?·WEA 역사·학자·WCC 관련여부 등 학문적 내용은 지면상 앞의 여러 주장에 맡기고, '안팎으로 도전받는 한국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위원회 활동과정을 정리하고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2. 위원회 활동 전 상황

1) WEA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신학적으로 평가할 자료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2) 다수의 목사 장로들도 'WEA가 어떠한 것인지? 왜 교류를 찬성 · 반대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이 문제가 '정치가 아닌, 성경과 신학적 논의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3. 위원회 활동(연구 발표와 공청회 등) 결과

• 긍정적 성과

1) 교단 내 3개 신학교 교수진이 연구논문에 참여하고, 논문이 기독신문에 요약 연재되었으며, 전체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전국목사장로기도회 등에 배부하여 WEA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게 했다.
2) 찬성과 반대 발제자를 3명씩 선정하고, 발제문을 책자로 만들어 배부하고 발표함으로써, 공청회의 효과를 높이고 연구논문과 함께 역사적 연구자료를 남겼다.
3) 3구도(총회회관, 광주, 부산) 공청회가 각각 다른 발제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문제를 다루어 기대와 열기가 있었다.
4) 공청회 참석 및 신문, 방송 등이 보도하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새로운 관점들도 소개되어 한국교회가 WEA를 좀 더 알게 되었다.
5) WEA와의 교류 찬반의 시각을 통하여 개혁신학의 미래를 준비하게 했다.

• 부정적 현상

1) 각 찬반 측이 연구 보고를 수용하거나 관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자세가 약하고 편향적 자세를 일부 보였다.
2) 공청회 질의응답에 과격하거나 상대를 지적 공격하는 현상이 있어 건전한 학문적 토론문화가 아쉬웠다.
3) 신학문제보다 지역, 출신학교, 정치적으로 논점을 보는 시각이 있었다.

4. 성경과 개혁신학을 지켜야 한다

1) 최근 정보와 과학이 인간 삶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 한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와 '진리의 길은 같다'는 다원주의 내지 종교단일화가 성경과 개혁신학에 도전한다. 일부 교인은 합동교단의 신학이 통합·감리·침례·순복음 등 교단과 무엇이 다른지 답을 못한다. 앞으로 교단 구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까지 말한다.
2) 우리는 무너진 유럽교회와 무너져가는 북미교회를 본다. '한국교회는 잘 보존될 수 있을까?' 질문한다. 이런 교회사를 보았기에 경고로 삼아 한국교회를 지킬 기회가 아직은 있다. 일제 강점기 한국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와 일부 성도들이 외롭게 진리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켰다.
3) 합동교단은 성경과 개혁주의를 지키기 위해 WCC와 영구 교류단절하고, 통합과도 분열했다. 사람 보기에 어리석은 일이었다. 총회신학교 외에 남은 것이 없는 가운데 오늘날 최대 교단이 된 것은 타협하지 않고 성경과 개혁신학을 지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5. 결론

1) 교회와 신학은 타협하고 세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선지자들의 책망 중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따르다 망했다. 대부분 교수들이 'WEA에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다. WEA와의 교류는 개혁신학을 무디게 할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WEA와 교류 단절하면 '고립된다'고 하지만, WEA와의 교류단절 때문에 고립되거나 문제될 일은 없다고 본다.
2) WEA와 교류 찬성측은 '선교협력을 위해 WEA와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회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규정[43]을 보면, 선교협력은 2단계로 높은 교류단계라 할 수 있다. "교류"의 간단한 정의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오가며 섞임'[44]이다. 합동 교단이 선교를 위해서 WEA와 오가며 섞일 필요가 없다. 'WEA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교류를 금지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혼하라'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계속 교제하는 것은 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가 WEA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입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교류도 하지 말아야 한다.
3) 연구논문과 공청회 과정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합동교단은 WEA와 교류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과 오염되지 아니한 보수 개혁신학을 지키고 가꾸면, 세계교회가 우리 신학교로 연구하고 배우러 올 것이다. 이 시대에 합동교단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지킬 사명이 있다고 본다. 그 사명 감당할 힘이 모아지기를 바라며 글을 줄인다.

---

43) 제8조(교류단계)
해외 교단의 교류 및 협력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차별 시행한다.
1. 동반자관계 교류 그룹 : 신학교 및 목회자 인준 등 최상급 교류 가능
2. 선교협력 교류 그룹 : 선교 현장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교류 가능
3. 일반협력 교류 그룹 : 교단으로 인정하고 통상교류하며 선교협력으로 발전 가능
4. 해외 한인교단 그룹 : 해외 한인 장로교단으로 상호교류 가능

44) 동아국어사전연구회, 이기문 감수, 동아 새국어사전, 1991. p.230.

총회에서 수임한 “WEA교류금지 헌의 건” 최종보고

다음 두 가지 안에 대하여 총회 본회에서 결의하도록 보고한다.

1) 제1안 : 본 교단과 구성원은 WEA가 신복음주의임으로 가입하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

2) 제2안 : 제104회 총회 결의(WEA와 교류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를 유지하되 WEA의 신학적 흐름에 대하여 연구하고 주시한다.